



# 남녘의 겨울을 만나는 방법 양산 여행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여유로운 삶의 도시 양산에 가보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조트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에덴밸리 스키장, 천년 역사의 숨결 속에 병풍처럼 둘러싼 영축산의 기운을 받는 통도사 등 양산에는 매력적인 겨울 명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추운 겨울 얼어 붙은 몸과 마음을 양산에서 따뜻하게 녹여보자.

## 국내 최남단 스키장 에덴밸리 스키장

양산에는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 천성산, 신불산 줄기 끝에 세워진 에덴밸리 스키장이 있다. 국내 최남단이면서 경남 유일의 스키장이기도 하다.

에덴밸리는 총면적 74만평 부지 안에 골프장, 스키장(7면의 슬로프), 255실의 화이트 팰리스 콘도미니엄이 들어서 있다.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이지만, 해발 800m에 위치한 에덴밸리는 12월에서 2월까지의 평균 기온이 영하 5도를 유지하고 있는 천혜의 요

새다. 슬로프 총 연장거리가 6km, 최장 거리가 1.5km에 이른다. 한 시간에 약 1만6천여명을 수송하는 최신형 POMA 초고속 리프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스키와 함께 3개의 바퀴가 달린 무동력의 작은 레포츠 썰매인 루지도 즐길 수 있다. 루지는 승탑자가 포장된 내리막길의 트랙을 따라 달리며 운전대로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에덴밸리 루지는 트랙 길이 2.04km로 세계 최장을 자랑한다.

2007년 12월 개장한 에덴밸리 스키장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다. 험하지 않고 완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산세가 안전하면서도 각종 즐길 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고 접근성도 용이하다. 영남의 다른 지역으로부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고, 김해공항과도 30분 남짓 떨어진 거리라 항공을 이용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



# 도민 체감 도정 프로젝트로 스마트 경남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 경제**

제조업 · 관광 · 농어업 · 사회서비스분야 등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스마트 교육**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체감도 높은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스마트 복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